

전북 벤처펀드 운용 투자사 모집

펀드 1조원 조성 목표로 올 상반기 2030억원 신규 결성 익산·정읍 등 바이오산업 육성 벤처펀드 조성 손잡아

전북자치도가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북형 첨단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동행 파트너를 모집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투자사 9개사를 6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벤처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는 지난 17일 이미 발표돼 국내 투자사들의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결성 목표는 총 9개 펀드 2,030억원으로, 총 6개 분야에 215억원 규모로 출자약정하고 4년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그간에는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정책출자기관의 벤처 펀드에 도가 출자금을 매칭해 참여하는 방식(도 자체 공모 없음)으로 운영돼도 정방향성에 부합한 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전략을 담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에는 정책출자기관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투자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도와 운용사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도가 벤처 펀드 직접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운용사를 선정함에 따라 투자사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도 정책 방향을 벤처 캐피탈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그간에도 소액, 소수의 벤처 펀드 결

성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사 모집 공고는 다수 있었으나, 200억원 이상 출자약정을 하는 지자체는 서울(810억원), 경기(205억원)를 제외하면 전북(215억원)이 유일하다.

이는 비수도권 시·도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 출자약정이다.

도는 올해 신규 조성되는 펀드는 도의 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2차전지, 레드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창업 초기 펀드는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력산업과 기후테크 신산업으로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시·군의 출자를 대행하는 경우는 전국 최초다.

익산과 정읍은 동물용 의약품, 오가노이드,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특화단지(전주, 익산, 정읍 일원)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북자치도 벤처 펀드에

출자하게 됐다.

도는 오는 6월 7일까지 출자제안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6월 21일 우선 협약대상 투자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연내 벤처 펀드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투자사 모집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고시/공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kvca.or.kr/) 출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 창업지원과(063-280-3227, 3273)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벤처펀드 1조원 시대를 선언하면서 전북자치도는 벤처펀드 출자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 펀드 전문관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벤처펀드를 결성해오고 있다.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도, 익산·김제 5개소 설치 추진... 재난안전특교세 13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고, 지방비 13억원을 더해 총 26억원을 자동차단시설을 설치에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익산시 △중앙 지하차도 △하나로 지하차도 △송학 지하차도 △삼거리 지하차도와 김제시 △서흥 지하차도 등 총 5개소이다.

자동차단시설은 지하차도에 CCTV, 차단기, 전광판, 수위계 등을 설치해 수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위계의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경보음과 함께 차단막이 내려와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 시설이다.

도내 지하차도는 총 6개 시군 20개소가 있으며, 침수위험이 있는 U자형 지

하차도는 17개소로, 이중 4개소(전주 3, 완주 1)는 지난 2021년 총 20억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했다.

도는 이번 특교세로 설치하는 5개소와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자동차단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전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하차도 내 집중정 및 배수로의 퇴적 토사를 순살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 지하차도 4인 담당자를 지정해 호우특보시 경찰과 연계해 현장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운동목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침수취약지역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돌발적인 기상 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침수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광역·시군 치매 안심센터 발전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전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광역 및 시·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치매관리사업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치매 관리사업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치매 관리사업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한명일 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치매 관리사업 유공자 시상, 치매 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고독사 사례로 바라본 치매 관리사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2024년 치매 관리사업 유공자 표창에는 기관 부문에는 △익산시보건소 △완주군보건소, 공무원 부문에는 △전주시보건소 신신희 △부안군보건소 김민정, 민간 부문에는 △정읍야산병원 김현기 △진안군 이재성 △무주군자원봉사센터 김미정이 수상했다.

김정 건강증진과장은 "광역 및 시·군 치매안심센터 덕분에 전북의 치매 관리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전북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와 관계자를 한데 모아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정주여건 개선·인력양성 방안 논의 위한 전문가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와 관계자를 한데 모아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29일 전주 데미 호텔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회의의 열여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북자치도의회(김동구 의원),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 LS-엘엔에프배터리 솔루션, 이디엘, 성일하이텍 등 이차전지 투자기업 10여 개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과 도내 이차전지 인력양성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광현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

지사업단장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 및 생태계 구축방안'을 시작으로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의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전두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인력양성팀장의 '배터리 산업 정부 전략 및 정책과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정주여건, 전문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만호 기자

여름철 호우대비예경보 시설 현장 점검

도, 민방위 경보시설 등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안전을 단단히 지키기 위해 도내 경보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9일 여름철 태풍, 호우 등을 대비해 군산시 경포천, 삼학동 일원을 찾아 재난 예경보시설 및 민방위 경보 시설의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내에 설치된 재난 예·경보 시설 3,952개소와 민방위 경보시설 172개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점검내용은 △예·경보 시설의 CCTV 카메라 화질 점검 및 전송 상태 △도와 시·군간 통신상태 시험, 원격 음성통보시스템 경보 시험방송 △보

안장비 및 전자시계 장치 △민방위 경보 시설의 유·무선 통신상태 △음성장치 및 전원장치 등을 확인했다.

전북자치도는 재난 예·경보통합방송 플랫폼을 설치, 클라우드 서버 이중화 작업을 통해 도 내에 설치된 재난 예·경보 시설 3,952개소에 시간 지연 없는 일제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급 재난 시·군 자체서버 또는 도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예·경보를 발령해 도민들이 신속·정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재난 예·경보 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 도와 시군에서 상시 점검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산란계농가 하절기 계란 살충제 집중 검사

전북특별자치도는 닭 진드기가 급증하는 하절기에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산란계농가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농장(96호)에서 계란을 수거해 34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검사를 실

시하며,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 및 전문방제업체의 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이성호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2018년 이후에는 계란검사에서 위반 사례는 없으며, 산란계 농장에서 닭 진드기 구제를 위한 살충제 사용 시 허가된 20종의 살충제를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킴이'

남원시 공고 제2024-1077호

남원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고

남원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공청회의 개최목적
 - 남원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 06. 11.(화) 11:00 ~ 12:00
 - 장 소 :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2층
- 도시재생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운봉읍 중심시가지(동천리, 서천리 일원)
 - 면 적 : 190,000㎡
 -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4년간)
 - *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
 - 사업목적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기타사항
 -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4. 06. 18.(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남원시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 우편 및 방문제출 : 남원시 시청로 60(도동동, 남원시청)
 - 이 메 일 : cbj031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남원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